

빈곤은 그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런데 빈곤의 거울 속에 언젠가부터 여성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남성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무능력한 여성가구주들, 홀로 사는 여성노인의 얼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하면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남성을 떠올리곤 한다.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피부양자로 생각하는 현실속에서 여성은 빈곤에서 일정 부분 비껴나 있었다.

최근들어 계층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매스컴 등 사회일각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빈곤과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현상을 주목하게 했다. 그것은 빈곤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처럼 빈곤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빈곤의 여성화'라고 하며 세계화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여성들이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부터 여성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약자에 대한 보호등



불자 세상보기

김영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여성빈곤의 내막

보살피는 자로 규정되었으며,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는 거의 평가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 가정에서의 보살피는 자의 역할과 유사한 유지원고사, 간호사, 보조,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등 특정직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직업은 핑크칼라직업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특정한 기술 없이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며 이는 여성의 저임금과도 관련된다.

현재 여성의 임금의 64%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02년 8월 현재 여성노동자

중 70.7%가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우선 해고 또는 비정규직 전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은 생계 부양자이며 여성의 1차적 역할은 가정에 있다'는 해묵은 이분법적 성역할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리함은 사회 복지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아내와 두 자녀를 가진 정규직 남성인

양자인 남성배우자가 없거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사회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현재만이 아닌 미래에도 노령, 실업, 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거의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빈곤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여성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여성운동의 활성화, 여성부 신설,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를 위한 법제정 및 시행 등으로 일견 여성의 권익이 상당히 신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성과 뒤에는 또 다른 여성의 문제, 즉 여성빈곤이 가려져 있었다. 현재 여성빈곤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됨에 따라 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다.

부르디외(Bourdieu)는 <세계의 비참>에서 어려운 삶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통탄해 해서도 안되고, 비웃어도 안되며 오직 이해하는 것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의 탈빈곤을 위한 대안마련은 우선 엘리트가 아닌 가난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세계 각국에서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여성 불자들이 이달 말 한국에 집결한다.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중앙승가대 학교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사카디타)'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1987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 대회는 '여성 불자의 교육과 수행 : 현재와 과거'라는 주제로 학술 발표와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어우러지는 한바탕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61명의 세계적인 여성 불교학자들이 발제자로 나서서 이번 대회는 적지 않은 규모의 국제 행사로서, 무엇보다도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학술 발표에서 소개될 논문들은 대부분 여성 불자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의 종심 학문으로 부상하고 있는 불교생태학과 에코페미니즘에 관한 논문도 눈에 띈다.

세계여성불자대회에 부쳐

그동안 한국 불교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에서 여성 불자의 지위는 결코 열등하지 않다. 대만을 제외하고는 한국만큼 비구니 교단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다. 개신교나 가톨릭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한국 불교만큼 양성 평등에 근접한 종교도 없다 할 것이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은 비구 스님과 대등하게 직접 설법에 나서고 의식을 주관하는 등 활동 범위가 넓다. 비록 불교에 팔경계법이 있지만, 이 법의 본질은 남성 우월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출가에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 생전 당시 인도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출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혁명적인 일이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팔경계법 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기대한다.

최근에 성공적으로 치러진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 국제학술대회에 이어 열리는 세계여성불자대회가 한국 불교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여성 불자의 역할이 한층 증대되고 불교 국가들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박경준(동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대회의 힘

'만일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열어 모인다면, 만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일을 함께 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하고 쇠하지 않으리라' <중야함 우버새경>

6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 해발 112m 고지 위 가로 4m 세로 3m짜리 초대형 확성기가 철거되기 시작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군사분계선(MDL) 155마일 선상에서 연일 남북간 '입씨름'을 벌이던 확성기와 '눈싸움'을 벌이던 전광판·입간판 등이 철거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6월 12일 개성 장성군군사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16일 오전 0시부터 8월 15일 오후 7시까지 MDL 지역 내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눠 철거키로 합의한 후 첫 신호탄인 셈이다.

분단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남북 정상이 만난 지 4년이 흐른 지금, 육로를 통해 금강산 여행을 갔다 오는 세상이 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불교계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봉행됐다. 남북 조계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전통사찰인 금강산 신계사를 공동으로 복원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4월 6일 신계사 터에서 착공식을 거행한 후 일련의 후속작업인 것이다. 천태종도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기와장을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길이 있을 것이다. 그 길 중 남북이 상호 비난을 자제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자주 모임을 열고 일을 함께 하는' 길을 택한다면 통일 한국의 미래는 '반드시 흥하고 쇠하지 않을 것'이다.

■ 남동우(우체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차 기준 제시하는 품평회로

경주에서 7월 준승경에 차 품평회가 열린다는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보았다.

나는 다인(大人)이라고 자처하기엔 부족함이 없진 않지만 평소 우리 차를 즐겨 마시고 있어, 차 품평회에서 전문가들이 좋은 차를 골라준다니 참 반갑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내 입맛에 좋으면 좋은 차려니' 하고만 생각하면서도, 좋은 차는 어떤 것일까 항상 궁금했다. 차를 사러 가면 좋은 차라고 구분해 내놓았지만, 정작 내 입맛엔 맞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가격이 아주 비싸 좋은 차라고 파는 것들만 마시기에는 부담이 많이 됐다.

차 품평회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 규모의 행사라고 들었다. 그런 만큼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맛 좋은 차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길 바란다. 또 시중에 나온 차 가운데 좋은 것만 가리지 말고, 앞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이가 훗시 차 가격에 거품이 있지는 않은지, 품질에 비해 가격이 턱없이 높지 않은지, 품질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서 부담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준다면 우리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강식(서울 성북구 석관2동)

사찰 시스템 변화 절실

요즘 사찰이 사찰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다. 이제는 사찰도 포교단 수행이든 사찰의 위치나 규모에 따라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변화되고 있음에도 일부사찰은 구태의연한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절을 처음 찾아온 이들에게 무조건 신심만 강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를 들어, 새 신자가 찾아오면 그들을 안내할 안내소를 설치한다거나 신도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사찰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도량 내에 마련해 놓는다면 아이들을 떼어놓고 절에 올 염려를 하지않아도 좋을 것이다.

요즘은 사찰도 서비스가 필요하다. 무뎠던 직원이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는 사찰에 누가 가고 싶겠는가.

이런 진지한 고민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한국불교와 사찰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발로 사찰로 향할 수 있게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재희(대구 수성구 범여동)

독자의 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차피'란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쉽게 포기하려 하거나 그렇게 하고 맙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어차피'가 '어느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분주하게 보낸 얼마의 시간 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젖은 비와 바람을 뚫고, 환경을 뒤

어넘은 소망과 신념, 그리고 안개꽃과 같은 희망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한 것은 한계, 두개씩 무너지고 있을 때마다 조금씩 불교의 향기가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 누군가에게 '지금의 제 마음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위의 도움이 없었으면 결코 받지 못했던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같은 어두운 곳에 빛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주교도소 불교회장 박진선 드림

'연대' 민평

심민섭



사람 補修가 더급해...

우리 가족에겐

名품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내 최대 오가피 제조자 성 광 수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신제품 발매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47-2004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처